

‘KPMG Ideathon’ 개최 사후 보도결과

- 총 21개 매체 23회 보도 -

2020. 3. 2 오전 10시 현재

No.	날 짜	매체명	기 사 제 목	기자
1	2020.02.27	연합뉴스	KPMG 아이디어톤 대회서 순천향대 IPL팀 우승	김아람
2	2020.02.28	문화일보	삼성KPMG 아이디어톤... 순천향대 'IPL'팀 우승 (지면)	송정은
3	2020.02.28	한국경제	'KPMG 아이디어톤' 대회 성료 (지면)	하수정
4	2020.02.28	머니투데이	KPMG 아이디어톤 대회서 순천향대 IPL팀 우승	조준영
5	2020.02.27	서울경제	AI로 기업 문제 해법 찾아라..KPMG 아이디어톤 우승은 'AI 쇼핑카트'	양사록
6	2020.02.29	파이낸셜뉴스	삼성KPMG 대학생 아이디어톤 'AI 쇼핑카트' 순천향대 IPL팀 우승 (지면)	김경아
7	2020.02.28	파이낸셜뉴스	'KPMG 아이디어톤'에서 순천향대 IPL팀 우승	김경아
8	2020.02.27	이데일리	'KPMG 아이디어톤' 우승에 순천향대 IPL팀..."AI 접목 쇼핑카트 선보여" (지면)	이광수
9	2020.02.28	조선비즈	삼성KPMG, 'KPMG 아이디어톤'서 AI 쇼핑카트 선보인 순천향대 IPL팀 우승	이다비
10	2020.02.28	뉴시스	삼성KPMG 대학생 아이디어톤, '순천향대 IPL팀' 우승	류병화
11	2020.02.27	뉴스1	'AI로 기업문제 해결' 삼성KPMG 경연 순천향대팀 우승	박응진
12	2020.02.28	헤럴드경제	'KPMG 아이디어톤'서 순천향대 팀 우승 (지면)	이세진
13	2020.02.28	헤럴드경제	'KPMG 아이디어톤'서 순천향대 팀 우승	이세진
14	2020.02.27	아시아경제	KPMG 아이디어톤 대회서 'AI쇼핑카트' 순천향대 IPL팀 우승	박지환
15	2020.03.01	아주경제	KPMG 아이디어톤 대회서 순천향대 IPL팀 우승	이보미
16	2020.02.27	이투데이	'KPMG 아이디어톤' 순천향대 IPL팀 우승..."AI기술 접목한 쇼핑카트 선보여"	유혜림
17	2020.02.27	디지털데일리	KPMG '아이디어톤(Ideathon)', 순천향대 IPL팀 우승	이상일
18	2020.02.28	데이터넷	KPMG 아이디어톤 대회서 순천향대 IPL팀 우승	윤현기
19	2020.02.27	조세일보	'KPMG 아이디어톤' 순천향대 IPL팀 우승	이현재
20	2020.02.27	세정신문	KPMG 대학생 아이디어대회, 'AI 쇼핑카트' 순천향대 IPL팀 우승	박혜진
21	2020.02.27	메트로신문	삼성KPMG, AI 비즈니스 솔루션 대회...순천향대 IPL팀 우승	손엄지
22	2020.02.27	디오데오	'AI로 기업문제 해결' 삼성KPMG 경연 순천향대팀 우승	편집국
23	2020.02.28	IT비즈니스	'AI 쇼핑카트' 선보인 순천향대 IPL팀, KPMG 아이디어톤 우승	최태우

연합뉴스

KPMG 아이디어톤 대회서 순천향대 IPL팀 우승



삼성KPMG가 개최한 대학생 혁신 아이디어 대회 'KPMG 아이디어톤'에서 순천향대 컴퓨터공학과 오진선·고금주·이동우·주정윤 학생으로 구성된 IPL(Image Processing LAB) 팀이 우승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인 IPL 팀에는 상금 1천만원과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인턴십 기회를 준다. 이들은 오는 8월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KPMG 주관 국제 결선에 참여할 자격도 얻었다.

김아람 기자

문화일보

삼성KPMG 아이디어톤...순천향대 'IPL'팀 우승



삼정KPMG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 팀(사진)이 우승했다고 28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기업문제를 해결하고 업무상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학생 88명이 19개 팀을 꾸려 참가했다.

IPL 팀은 AI 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준우승한 'ing(전처리중)' 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3등은 AI 기술을 활용한 회의 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 팀이 수상했다. 우승팀에겐 상금 1000만 원과 삼정 KPMG 라이트하우스 인턴십 기회, 오는 8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결선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 참가 기회 등이 주어진다.

송정은 기자

삼성KPMG 아이디어톤 순천향대 'IPL' 팀 우승



■ 삼성KPMG는대학생을대상으로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순천향대 'IPL' 팀(사진)이우승했다고 28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인공지능(AI)을통해기업문제를해결하고 업무상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학생 88명이 19개 팀을 꾸려 참가했다.

IPL 팀은 AI 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준우승한 'ing(전처리중)' 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3등은 AI 기술을 활용한 회의 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 팀이 수상했다. 우승팀에겐 상금 1000만 원과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인턴십 기회, 오는 8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결선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 참가 기회 등이 주어진다.

송정은 기자

'KPMG 아이디어톤' 대회 성료



삼정KPMG가 27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팀(사진)이 우승했다. KPMG 아이디어톤은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아이디어로 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회다. IPL팀은 AI 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우승팀에는 상금 1000만원과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하수정 기자



'KPMG 아이디어톤' 대회 성료

삼정KPMG가 27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팀(사진)이 우승했다. KPMG 아이디어톤은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아이디어로 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회다. IPL팀은 AI 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우승팀에는 상금 1000만원과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머니투데이

KPMG 아이디어톤 대회서 순천향대 IPL팀 우승

삼정KPMG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디어톤'은 STEM 및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머닝러신과 데이터과학, 자동화, API 등 인공지능 중심의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19개 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해 팀별로 각자 과제를 수행한 후 제출했고 심사는 화상으로 진행했다. 시상식도 연기했으며 화상 시상식을 검토 중이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트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우승한 순천향대 IPL팀(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우승팀에는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PMG Ideation Challenge, KIC)' 참가자격을 갖는다. 8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KIC에는 각국의 20여개 우승팀이 한 자리에 모여 치열한 아이디어 경합을 펼치게 되며 국제 결선 우승팀에겐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약 6000만원(5만달러)의 시드머니가 지원된다.

조준영 기자

서울경제

AI로 기업 문제 해법 찾아라..KPMG 아이디어톤 우승은 'AI 쇼핑카트'

대학생 88명 참여해 AI 활용한 아이디어 경연 펼쳐
IPL팀, AI로 카트 속 상품 가격 인식하는 서비스 구현
상금1,000만원·8월 국내 개최 국제결선 참가자격 얻어
삼성KPMG 'AI연구소' 라이트하우스 인턴십 기회도



▲KPMG아이디어톤에서 우승한 순천향대 IPL팀(왼쪽부터 주정윤,고금주,이동우,오진선)이 우승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KPMG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 및 상경계를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인공지능(AI) 관련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회로 삼성KPMG가 주최하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19개팀 88명의 대학생들은 'AI를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심사를 화상으로 진행했으며, 상황에 따라 화상 시상식도 검토 중이다.

주최 측인 삼성KPMG에선 이광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상무와 안상선 엠로보 대표 등이 멘토로 참가해 학생들의 자문을 맡았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AI를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목록으로 구현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대회 심사를 맡은 양현석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전무는 "IPL팀은 AI를 활용해 카트에 담긴 물건의 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기존 상품인식 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해 상품성까지 고려하는 뛰

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준우승한 ing(전처리중)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놔다. 3등은 최신 AI를 활용한 회의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팀이 수상했다.

우승팀에는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며,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IC)'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준우승 팀과 3등팀에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이 수여된다.

오는 8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KIC에는 각국의 20여개 우승팀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아이디어 경합을 펼친다. 우승팀에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약 5만달러(약 6,000만원)의 시드머니가 지원된다.

양사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정KPMG 대학생 아이디어톤 'AI 쇼핑카트' 순천향대 IPL팀 우승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우승한 순천향대 IPL팀(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삼정KPMG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8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STEM 및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인공지능(AI) 중심의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다. 19개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김경아 기자

지면정보 : A18면 (2020. 2. 29일자)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우승한 순천향대 IPL팀(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삼성KPMG 제공

삼성KPMG 대학생 아이디어톤 'AI 쇼핑카트' 순천향대 IPL팀 우승

삼성KPMG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8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STEM 및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인공지능(AI) 중심의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다. 19개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KPMG 아이디어톤'에서 순천향대 IPL팀 우승

대학생 88명 참여해 AI기술 활용한 아이디어 경연 펼쳐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우승한 순천향대 IPL팀(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삼정KPMG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8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은 STEM 및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머닝러신과 데이터과학, 자동화, API 등 인공지능 중심의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19개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팀별로 각자 과제를 수행한 후 제출하였고 심사는 화상으로 진행했다. 시상식도 연기 했으며, 화상 시상식을 검토 중이다.

이광춘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 상무와 안상선 엠로보 대표 등이 멘토로 참가해 학생들에게 자문을 했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

다. 준우승한 ing(전처리중)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3등은 최신 AI기술을 활용한 회의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팀이 수상했다. IPL팀은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오진선, 고금주, 이동우, 주정윤 학생으로 구성됐다.

우승팀에는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며,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PMG Ideation Challenge, KIC)'에 참가 자격을 갖는다. 준우승팀과 준준우승팀에는 500만원과 300만원이 차등 수여된다.

한편 8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KIC에는 각 국의 20여개 우승팀이 한 자리에 모여 치열한 아이디어 경합을 펼치게 되며, 국제 결선 우승팀에겐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약 6000만원(USD 50,000)의 시드머니가 지원된다.

김경아 기자

이데일리

'KPMG 아이디어톤' 우승에 순천향대 IPL팀..."AI 접목 쇼핑카트 선보여"



▲삼정KPMG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씨)

삼정KPMG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은 STEM 및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머닝러신과 데이터과학, 자동화, API 등 인공지능 중심의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삼성KPMG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씨) (사진=삼성KPMG)

19개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해 팀별로 각자 과제를 수행한 후 제출하였고 심사는 화상으로 진행했다. 시상식도 연기 했으며, 화상 시상식을 검토 중이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트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우승팀은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또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PMG Ideation Challenge, KIC)'에 참가 자격을 갖는다. 준우승팀과 준준우승팀에는 5백만원과 3백만원이 차등 수여된다.

IPL팀 오진선 순천향대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 다뤄보는 기술에 있어 한계점을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통해 완성시킬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밝혔다.

대회 심사를 맡은 양현석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전무는 "AI기술을 활용해 카트에 담긴 물건의 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인식 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장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순천향대 IPL팀 'KPMG 아이디어톤' 우승

AI 기술 접목한 쇼핑카트 선보여

삼성KPMG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은 STEM 및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머닝러신과 데이터과학, 자동화, API 등 인공지능 중심의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19개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아이디어 경연을 벌였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트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우승팀은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



정KPMG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왼쪽부터 주정윤·고금주·이동우·오진선씨. 삼성KPMG 제공

정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또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PMG Ideation Challenge, KIC)'에 참가 자격을 갖는다. IPL팀 오진선 순천향대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 다뤄보는 기술에 있어 한계점을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통해 완성시킬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조선비즈

삼성KPMG, 'KPMG 아이디어톤'서 AI 쇼핑카트 선보인 순천향대 IPL팀 우승

삼성KPMG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KPMG 아이디어톤'에서 순천향대 IPL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팀을 꾸려 머닝러신·데이터과학·자동화·API 등 인공지능 중심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다. 19개팀으로 구성된 대학생 88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겨뤘다.

우승한 IPL팀은 AI 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목록이 만들어지고 결제까지 되는 서비스다. IPL팀은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오진선·고금주·이동우·주정윤 학생으로 구성됐다.

대회 심사를 맡은 양현석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전무는 "IPL팀은 AI 기술을 활용해 카트에 담

긴 물건 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참신했다"며 "기존 상품인식 시스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려는 시장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우수했다"고 했다.

우승팀에는 상금 1000만원과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글로벌 KPMG 조직인 라이트하우스는 감사 업무 자동화 톨·회계감사 챗봇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을 연구한다. 우승팀은 또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에 참가 자격도 얻는다. 시상식은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연기됐으며 화상 시상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삼정KPMG는 설명했다.

이다비 기자

뉴스

삼정KPMG 대학생 아이디어톤, '순천향대 IPL팀' 우승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우승한 순천향대학교 IPL팀. 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삼정KPMG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학교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8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STEM 및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머닝러신과 데이터 과학, 자동화, API 등 인공지능 중심의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대회 후원사로 참여했다.

19개팀으로 구성된 대학생 88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계획을 수정해 팀별로 각자 과제를 수행한 후 제출했고 심사는 화상으로 진행했다. 시상식은 연기 됐으며 화상 시상식을 검토 중이다.

이광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상무와 안상선 엠로보 대표 등이 멘토로 참가해 학생들에게 자문을 했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트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우승팀에는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또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에 참가 자격을 갖는다.

류병화 기자

뉴스1

'AI로 기업문제 해결' 삼성KPMG 경연 순천향대팀 우승



삼성KPMG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기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업무상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놓고 대학생들이 경쟁하는 대회다. 대학생 88명이 19개팀을 꾸려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순천향대 IPL팀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트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준우승한 ing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놨다. 3등은 최신 AI기술을 활용해 회의 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팀이 수상했다.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오는 8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결선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에도 참가할 수 있다. 준우승팀과 3등팀은 각각 500만원, 300만원을 받는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이번 대회의 심사는 화상으로 진행

됐다. 시상식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응진 기자

헤럴드경제

'KPMG 아이디어톤'서 순천향대 팀 우승



▲순천향대 IPL팀(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삼정KPMG는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8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및 경영·경제 전공 대학생들이 팀 단위로 참가해, 머닝러신과 데이터과학, 자동화, API 등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프로그래밍(문제해결 및 효율성 제고) 개발 경쟁을 벌인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19개 팀, 88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우승팀 IPL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이세진 기자

‘KPMG 아이디어톤’서 순천향대 팀 우승

삼정KPMG는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8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및 경영·경제 전공 대학생들이 팀 단위로 참가해, 머신러닝과 데이터과학, 자동화, API 등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프로그래밍(문제해결 및 효율성 제고) 개발 경쟁을 벌인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



순천향대 IPL팀(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는 19개팀, 88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우승팀 IPL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이세진 기자

헤럴드경제

‘KPMG 아이디어톤’서 순천향대 팀 우승

AI 접목 쇼핑카트 선봬

우승상금 1000만원·삼정KPMG 인턴십 기회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우승한 순천향대 IPL팀(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삼성KPMG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8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및 경영·경제를 전공한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머닝러신과 데이터과학, 자동화, API 등 인공지능 등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19개 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팀별로 각자 과제를 수행한 후 제출하고 심사는 화상으로 진행했다. 시상식도 연기 했으며, 화상 시상식을 검토 중이다.

이광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상무와 안상선 엠로보 대표 등이 멘토로 참가해 학생들에게 자문을 했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준우승한 ing(전처리중)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3등은 최신 AI기술을 활용한 회의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팀이 수상했다.

우승팀에는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며,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PMG Ideation Challenge, KIC)'에 참가 자격을 갖는다. 준우승팀과 준준우승팀에는 500만원과 300만원이 차등 수여된다.

8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KIC에는 각 국의 20여개 우승팀이 한 자리에 모여 치열한 아이디어 경합을 펼치게 되며, 국제 결선 우승팀에겐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약 6000만원(5만달러)의 시드머니가 지원된다.

이세진 기자

아시아경제

KPMG 아이디어톤 대회서 'AI쇼핑카드' 순천향대 IPL팀 우승



삼성KPMG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 및 상경계를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인공지능(AI) 관련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회이다. 삼성KPMG가 주최하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19개팀 88명의 대학생들은 'AI를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심사를 화상으로 진행했으며 화상 시상식도 검토 중이다.

주최 측인 삼성KPMG에선 이광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상무와 안상선 엠로보 대표 등이 멘토로 참가해 학생들의 자문을 맡았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AI를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목록으로 구현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양현석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전무는 "IPL팀은 AI를 활용해 카트에 담긴 물건의 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기존 상품인식 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해 상품성까지 고려하는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준우승한 ing(전처리중)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놔다. 3등은 최신 AI를 활용한 회의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팀이 수상했다.

우승팀에는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IC) 참가 자격을 준다. 준우승팀과 3등팀에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이 수여된다.

오는 8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KIC에는 각국의 20여개 우승팀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아이디어 경합을 펼친다. 우승팀에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약 5만달러(약 6000만원)의 시드머니가 지원된다.

박지환 기자

아주경제

KPMG 아이디어톤 대회서 순천향대 IPL팀 우승



'KPMG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삼정KPMG는 지난달 20~21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서 IPL팀을 비롯해 ing팀, C-크루즈(Crews)팀이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19개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이 참가했다. 멘토로는 이광춘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 상무와 안상선 엠로보 대표 등이 참여해 자문을 했다.

순천향대 IPL팀은 이 대회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담아주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IPL팀은 컴퓨터공학과 오진선, 고금주, 이동우, 주정윤 학생으로 구성됐다.

준우승을 한 조선대·송실대·서울디지털대 연합 ing(진처리중)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놔다. 3등은 최신 AI기술을 활용한 회의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서울대·고려대 연합 C-크루즈팀이 차지했다.

우승팀에는 1000만원의 상금과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PMG Ideation Challenge-KIC)' 참가 자격도 받는다. 준우승팀과 3위팀에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양현석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전무는 "IPL팀은 아이디어의 참신성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인식 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장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했다.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은 시스템·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머닝러신과 데이터과학, 자동화, 인터페이스(API) 등 인공지능 중심의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보미 기자

이투데이

'KPMG 아이디어톤' 순천향대 IPL팀 우승..."AI기술 접목한 쇼핑카트 선보여"

삼성KPMG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은 STEM 및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머닝러신과 데이터과학, 자동화, API 등 인공지능 중심의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19개 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이광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상무와 안상선 엠로보 대표 등이 멘토로 참가해 학생들과 함께했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AI 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준우승한 ing(전처리중)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3등은 최신 AI기술을 활용한 회의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팀이 수상했다. IPL팀은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오진선, 고금주, 이동우, 주정윤 학생으로 구성됐다.



▲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우승한 순천향대 IPL팀(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우승팀에는 10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며,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PMG Ideation Challenge, KIC)'에 참가 자격을 갖는다. 준우승팀과 준준우승팀에는 500만 원과 300만 원이 차등 수여된다.

8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KIC에는 각국의 20여 개 우승팀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아이디어 경합을 펼치게 되며, 국제 결선 우승팀에겐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약 6000만 원의 시드머니가 지원된다.

IPL팀 오진선 순천향대 학생은 "우리 팀이 소속된 IPL 연구실에서는 매년 의미 있는 프로젝트 결과를 내기 위해 IT 신기술 동향을 살피고 아이디어 기획부터 프로토타입까지 개발하는 자체적인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 다뤄보는 기술에 있어 한계점을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통해 완성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혔다.

대회 심사를 맡은 양현석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 전무는 "IPL팀이 선정된 배경에는 AI기술을 활용해 카트에 담긴 물건의 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참신성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인식 시스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장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는 데이터 과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의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됐으며 감사 업무 자동화 툴, 회계감사 챗봇, 데이터 기반 딜 소싱 지원,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을 수행하고 있다.

라이트하우스는 KPMG의 글로벌 조직으로서 전 세계 20개국 이상 1만4000여명의 전문가들이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타 데이터 기반 기술 능력을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배양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팀별로 각자 과제를 수행한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심사는 화상으로 진행했으며 화상 시상식을 검토 중이다.

유혜림 기자

디지털데일리

KPMG '아이디어톤(Ideathon)', 순천향대 IPL팀 우승



▲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우승한 순천향대 IPL팀(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삼성KPMG(회장 김교태)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은 STEM 및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머닝러신과 데이터과학, 자동화, API 등 인공지능 중심의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19개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 팀별로 각자 과제를 수행한 후 제출하였고 심사는 화상으로 진행했다. 시상식도 연기했으며, 화상 시상식을 검토 중이다.

이광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상무와 안상선 엠로보 대표 등이 멘토로 참가해 학생들에게 자문을 했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트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준우승한 ing(전처리중)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3등은 최신 AI기술을 활용한 회의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팀이 수상했다. IPL팀은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오진선, 고금주, 이동우, 주정윤 학생으로 구성됐다.

우승팀에는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며,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PMG Ideation Challenge, KIC)'에 참가 자격을 갖는다. 준우승팀과 준준우승팀에는 500만원과 300만원이 차등 수여된다.

이상일 기자

데이터넷

KPMG 아이디어톤 대회서 순천향대 IPL팀 우승

AI 기술 접목한 쇼핑카트 선보여...아이디어 참신성·시장성 돋보여

삼성KPMG(회장 김교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STEM 및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머닝러신과 데이터과학, 자동화, API 등 인공지능 중심의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19개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경쟁을 벌였으며, 이광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상무와 안상선 엠로보 대표 등이 멘토로 참가해 학생들에게 자문을 했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해 팀별로 각자 과제를 수행한 후 제출했

고, 심사는 화상으로 진행했다. 시상식도 연기 했으며, 화상 시상식을 검토 중이다.



▲ KPMG 아이디어톤에서 우승한 순천향대 IPL팀. (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우승은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오진선, 고금주, 이동우, 주정윤 학생으로 구성된 IPL팀이 거머쥐었다. IPL팀은 AI 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는데,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트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준우승한 ing(전처리중)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렸으며, 3등은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회의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팀이 수상했다.

우승팀에는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며,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IC: KPMG Ideation Challenge)'에 참가 자격을 갖는다. 준우승팀과 준준우승팀에는 500만원과 300만원이 차등 수여된다.

오는 8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KIC에는 각국의 20여개 우승팀이 한 자리에 모여 치열한 아이디어 경합을 펼치게 되며, 국제 결선 우승팀에겐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약 6000만원(5만 달러)의 시드머니가 지원된다.

IPL팀 오진선 학생은 "우리 팀이 소속된 IPL 연구실에서는 매년 의미 있는 프로젝트 결과를 내기 위해 IT 신기술 동향을 살피고 아이디어 기획부터 프로토타입까지 개발하는 자체적인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 다뤄보는 기술에 있어 한계점을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통해 완성시킬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혔다.

대회 심사를 맡은 양현석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전무는 "IPL팀이 선정된 배경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카트에 담긴 물건의 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참신성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인식 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장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 과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의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된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는 감사 업무 자동화 툴, 회계감사 챗봇, 데이터 기반 딜 소싱 지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세무 및 컨설팅 서비스 지원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을 수행하고 있다. 라이트하우스는 KPMG의 글로벌 조직으로서 전 세계 20개국 이상 1만4000여명의 전문가들이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타 데이터 기반 기술 능력을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배양하고 있다.

윤현기 기자

조세일보

'KPMG 아이디어톤' 순천향대 IPL팀 우승

AI기술 접목한 쇼핑카트 선보여



▲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우승한 순천향대 IPL팀(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삼성KPMG(회장 : 김교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은 STEM 및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머닝러신과 데이터과학, 자동화, API 등 인공지능 중심의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19개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 팀별로 각자 과제를 수행한 후 제출했고 심사는 화상으로 진행했다. 시상식도 연기했으며, 화상 시상식을 검토 중이다.

이광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상무와 안상선 엠로보 대표 등이 멘토로 참가해 학생들에게 자문을 했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트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준우승한 ing(전처리중)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3등은 최신 AI기술을 활용한 회의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팀이 수상했다. IPL팀은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오진선, 고금주, 이동우, 주정윤 학생으로 구성됐다.

우승팀에는 1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며,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PMG Ideation Challenge, KIC)'에 참가 자격을 갖는다. 준우승팀과 준준우승팀에는 5백만원과 3백만원이 차등 수여된다.

8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KIC에는 각국의 20여개 우승팀이 한 자리에 모여 치열한 아이디어 경합을 펼치게 되며, 국제 결선 우승팀에겐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약 6000만원(USD 5만)의 시드머니가 지원된다.

IPL팀 오진선 순천향대 학생은 "우리팀이 소속된 IPL 연구실에서는 매년 의미 있는 프로젝트 결과를 내기 위해 IT 신기술 동향을 살피고 아이디어 기획부터 프로토타입까지 개발하는 자체적인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 다뤄보는 기술에 있어 한계점을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통해 완성시킬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미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삼성KPMG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감사하고, 앞으로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에서의 인턴 경험 및 자기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대회 심사를 맡은 양현석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전무는 "IPL팀이 선정된 배경에는 AI기술을 활용해 카트에 담긴 물건의 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인식 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장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 과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의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된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는 감사 업무 자동화 툴, 회계감사 챗봇, 데이터 기반 딜 소싱 지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세무 및 컨설팅 서비스 지원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을 수행하고 있다. 라이트하우스는 KPMG의 글로벌 조직으로서 전 세계 20개국 이상 1만4천여명의 전문가들이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타 데이터 기반 기술 능력을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배양하고 있다.

이현재 기자

세정신문

KPMG 대학생 아이디어대회, 'AI 쇼핑카트' 순천향대 IPL팀 우승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STEM 및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중심의 발상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아이디어 대회다. 대회는 88명의 대학생, 총 19개팀이 아이디어 경쟁을 펼쳤으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 왼쪽부터 순천향대 컴퓨터공학과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순천향대 컴퓨터공학과 오진선·고금주·이동우·주정윤 학생으로 결성된 IPL팀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는데, 이는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트업·결제 that 이뤄지는 서비스다.

준우승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제출한 ing(전처리중)팀이, 3등은 AI기술로 회의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팀이 각각 수상했다.

우승팀에는 1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며,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IC)'에 참여할 자격도 얻는다. 준우승팀·준준우승팀에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이 수여된다.

당초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의 경합으로 계획됐던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팀당 개별 과제 수행 및 제출로 대체됐으며, 심사도 화상으로 진행됐다. 시상식도 연기돼 화상 시상식이 검토 중이다.

IPL팀의 오진선 순천향대 학생은 "우리 팀이 소속된 IPL 연구실에서는 매년 의미있는 프로젝트 결과를 내고자 IT 신기술 동향을 살피고 아이디어 기획부터 프로토타입까지 개발하는 자체적인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 다뤄보는 기술에 대해 한계점을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통해 완성시킬 수 있어 뜻깊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양현석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 전무는 "IPL팀은 아이디어의 참신성 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인식 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장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 결선인 KIC는 오는 8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 결선 우승팀에겐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약 6천만원의 시드머니가 지원된다.

박혜진 기자

메트로신문

삼정KPMG, AI 비즈니스 솔루션 대회...순천향대 IPL팀 우승

'아이디어톤' 순천향대 IPL팀 우승 "AI기술 접목한 쇼핑카트 선보여"



▲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우승한 순천향대 IPL팀(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학생)

삼정KPMG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은 STEM 및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인공지능 중심의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19개 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팀별로 각자 과제를 수행한 후 제출했고, 심사는 화상으로 진행했다. 시상식 역시 화상 시상식을 검토 중이다.

우승을 거머쥔 IPL팀은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트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준우승한 ing(전처리중)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놨다. 3등은 최신 AI기술을 활용한 회의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팀이 수상했다.

우승팀에는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며,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PMG Ideation Challenge-KIC)'에 참

가 자격을 갖는다. 준우승팀과 준준우승팀에는 500만원과 300만원이 차등 수여된다.

대회 심사를 맡은 양현석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전무는 27일 "IPL팀이 선정된 배경에는 AI기술을 활용해 카트에 담긴 물건의 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인식 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장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 과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의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된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는 감사 업무 자동화 툴, 회계감사 챗봇, 데이터 기반 딜 소싱 지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세무 및 컨설팅 서비스 지원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을 수행하고 있다.

손엄지 기자

디오데오

'AI로 기업문제 해결' 삼성KPMG 경연 순천향대팀 우승



삼성KPMG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고 27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기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업무상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놓고 대학생들이 경쟁하는 대회다. 대학생 88명이 19개팀을 꾸려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순천향대 IPL팀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트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준우승한 ing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놨다. 3등은 최신 AI기술을 활용해 회의 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팀이 수상했다.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오는 8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결선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에도 참가할 수 있다. 준우승팀과 3등팀은 각각 500만원, 300만원을 받는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이번 대회의 심사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시상식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디오데오 편집국

IT비즈니스

‘AI 쇼핑카트’ 선보인 순천향대 IPL팀, KPMG 아이디어톤 우승



▲ 순천향대 IPL팀(왼쪽부터 주정윤, 고금주, 이동우, 오진선)

삼정KPMG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순천향대 IPL(Image Processing LAB)팀이 우승했다.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은 STEM 및 경영·경제 전공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머닝러신(ML)과 데이터과학, 자동화, API 등 인공지능(AI) 중심의 아이디어로 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대회다.

19개팀으로 구성된 88명의 대학생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대회에 참가했다. 이광춘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 상무, 안상선 엠로보 대표 등이 멘토로 참여했다.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오진선, 고금주, 이동우, 주정윤 학생으로 구성된 IPL팀은 AI기술을 접목한 쇼핑카트를 선보였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AI가 상품을 인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리스트업되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준우승한 ing(전처리중)팀은 기계학습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획득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3등은 최신 AI기술을 활용한 회의시간 효율화를 제안한 C-Crew팀이 수상했다.

우승팀에는 1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제공된다.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PMG Ideation Challenge, KIC)’에 참

가자격도 제공된다. 준우승팀과 준준우승팀에는 5백만원과 3백만원이 차등 수여된다.

심사를 맡은 양현석 삼성KPMG 라이트하우스 전무는 "IPL팀이 선정된 배경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카트에 담긴 물건의 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인식 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장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다.

최태우 기자

- 끝 -